

## II. 국내 대기업의 벤처투자 현황과 투자 전략

### EXECUTIVE SUMMARY

#### 1. 개요 및 의의

- (개요) CVC(Corporate Venture Capital: 기업 벤처캐피털)가 대기업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음
  - CVC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나 일반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사업과 관련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, 함께 성장하는 것이 주목적임
  - 최근 들어 4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급증하고 있음
- (의의) 대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과 업무제휴를 맺고, 기술개발과 판매 등을 공유·분담하거나 자금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
  - 대기업이 축적한 노하우와 자금력에 의한 벤처투자는 기존의 사업조직에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,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됨

#### 2. 대기업의 벤처투자 현황

- (투자 현황) 대부분의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이며, 4대 그룹이 밝힌 벤처투자 규모는 공동 벤처펀드 구성 등 향후 3년간 총 1조 원 규모임
- (투자 유형) 직접투자, 전략적 제휴, 간접투자의 3가지 투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
  - 직접투자: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벤처투자 모델로 사내 벤처나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,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
  - 전략적 제휴: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함
  - 간접투자: 벤처캐피털이나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, 최근 들어 급증하는 투자 방식임

#### 3. 벤처투자의 기본 방향

- (네트워킹에 의한 범위의 경제 확보) 수평적·횡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으로 주력 업종과의 연관 효과를 고려한 범위의 경제 확보에 주력함
- (시너지 효과를 감안한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) 인큐베이팅을 통해 자사 주력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거나 신규 사업 아이템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음
- (글로벌 경영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)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하에서 해외 벤처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영을 위한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이 필요함
- ('스피드 경영'을 위한 A&D의 수단으로 활용) 신기술 확보에 있어 A&D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,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스피드 경영을 이룩함

### 1. 개요 및 의의

- **CVC(Corporate Venture Capital: 기업 벤처캐피탈)가 대기업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음**
  - CVC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나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사업과 관련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, 함께 성장하는 것이 주목적임
  - 99년말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총 4,934개로 그동안 창업투자사, 엔젤 클럽 및 사채시장의 자금이 주로 투자재원이었음
  - 최근 들어 4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급증하고 있음
  -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세계적으로도 급증하는 추세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제조업체가 주축이 된 CVC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과 양대 축을 이루고 있음<sup>1)</sup>
  
- **벤처투자는 대기업들에게 변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음**
  -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기존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
  -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에 비해 자본과 판매, 경영능력이 부족하며, 이는 대기업의 자금력과 경영노하우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음
  - 대기업이 축적한 노하우와 자금력에 의한 벤처투자는 기존의 사업조직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고,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됨
  - 대기업은 벤처기업과 업무제휴를 맺고, 기술개발과 판매 등을 공유·분담하거나 자금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
  
- **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‘출자총액제한제’<sup>2)</sup>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**
  - 30대 그룹계열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분율이 30% 미만이면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함
  - 이에 따라 건설업이나 전통적인 제조업종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

---

1) 99년 미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480억 달러(전년대비 150%)로, 이중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.

2)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% 이상 다른 회사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01년 4월부터 1년간 초과지분을 해소해야 함.

## 2. 대기업의 벤처투자 현황 및 의의

### ○ 투자 현황

- 4대 그룹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임
  - 현대는 현대기술투자가 280억 원, 현대종합상사가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중이며, 현대전자는 분사를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할 계획임
  - 삼성은 벤처전담 펀드인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3천억 원을 투자하고,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각각 300억 원과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
  - LG는 LG창투(500억 원)와 LG상사, SK는 SK텔레콤(180억 원)과 SK상사, (주)SK 등에서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음
  - 4대 그룹이 밝힌 공동 벤처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규모는 향후 3년간 총 1조 원 규모임
  - 코오롱(1천억 원), 한화그룹(200억 원) 등 여타 대기업과 공기업인 한전, 포철(200억 원) 등도 벤처투자에 적극적임

<표 1> 4대 그룹의 주요 벤처투자 현황

(단위: 억 원)

구분	금액	내용	비고	
현대	종합상사	100	투자과 기술자문	
	전자	-	멀티캡, HDT, 미래SI, 현대에스티 등	본사 통해 지원
	기술투자	280	33개 벤처기업	99년 중
삼성	물산	300	인터넷, 정보통신 등	99년 중 100억 원 투자
	전기	200	사내벤처육성, 인터넷 디지털 등	
	벤처투자	3,000	전자, 정보통신, 인터넷, 영화 등	
LG	상사	-	신텔정보통신, 미디어링크 등과 전략적 제휴	
	창업투자	500	80여개 벤처기업	
SK	(주)SK	100	정보통신, 생명과학 등 사내벤처	
	상사	100	니트젠, 선양테크 등에 투자	인터베스트 설립
	텔레콤	180	정보통신업체 등에 투자	STICIT벤처투자 설립
	옥시케미컬	50	정보통신, 정밀화학 등	

## II. 국내 대기업의 벤처투자 현황과 투자 전략

---

### ○ 투자 유형별 분류

#### - (직접투자)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벤처투자 모델임

- 사내 벤처나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,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
- 삼성의 경우 2002년까지 2,500억 원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임
- 투자 방식은 창업 단계에서 총 투자액의 50%, 자본금 확충 단계에서 40%, 상장 직전 단계에서 10% 등의 비중으로 각각 투자할 방침을 밝힘

#### - (전략적 제휴)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임

- 기술개발과 생산은 벤처기업이, 자금지원과 마케팅은 대기업이 맡는 방식이 일반적인 제휴 형식임
- 현대종합상사는 인터넷 관련 토털 솔루션업체인 서울시스템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 함
-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울시스템이 인터넷기반기술을 제공하고, 현대종합상사가 수출업무를 지원하게 됨

#### - (간접투자) 벤처캐피털이나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로,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투자 방식임

- 현대 등 4대 그룹은 신기술금융사나 창업투자사를 계열사로 두고,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
- 현대기술투자는 2개, 삼성벤처투자는 5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해 주식,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등을 인수하는 투자 방식을 취함
- 이밖에 벤처기업의 창업을 일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(incubating)<sup>3)</sup> 형태의 투자도 늘고 있으며, 관련 분야의 인터넷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벤처투자로 이뤄지고 있음

---

3) 인큐베이팅(벤처보육사업)은 기존 창투자 등 벤처캐피털이 단순 자본투자에 그치는 데 반해 회사 성장과 관련된 자금, 인력, 기획, 마케팅,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투자 방식을 말함

### 3. 벤처투자의 기본 방향

- 첫째, 네트워킹에 의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라

- 대기업과 투자 벤처기업은 지배관계가 아닌 지분 공유 관계를 통해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과제임
- 네트워킹은 단순한 자본의 결합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정보흐름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직적 계열화가 아닌 수평적·횡적인 제휴와 협력을 말함
- 이러한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단기간의 투자수익 보다는 주력 업종과의 연관 효과를 고려한 범위의 경제 확보에 주력함

<사례> GE 및 IBM

- 선진기업의 글로벌 전략은 전략적 제휴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벤처투자를 활용함
- **(GE)** '시장을 점유하되 설비는 보유하지 않는다(own market, not try to own capacity)'라는 전략을 추구하며,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개발기간의 단축 및 위험 분산을 위해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
- **(IBM)** 기술개발에 있어서 투자 및 제휴업체들과 생산 및 신기술을 공유하는 '협조적 이노베이션' 전략을 추진중임

- 둘째,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라

-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인큐베이팅의 활용을 통해 법률·경영적 지원 등을 통한 투자가 효율적임
- 유망 협력업체를 확보할 수 있고, 향후 자사 주력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거나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음

<사례> 현대건설

- 현대건설은 신규 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,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큐베이팅 형식의 벤처투자에 적극적임
- 서울 목동 월드타워(지상 25층)를 벤처지원센터로 지정, 50개 업체를 무상으로 입주시키고, 향후 지원대상을 2백여개사까지 늘려 나갈 예정임
- 6개월안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나 법인설립 후 2년 정도의 신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, 법률, 금융, 세무, 기술,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함

## II. 국내 대기업의 벤처투자 현황과 투자 전략

### - 셋째, 글로벌 경영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차원으로 투자하라

- 인터넷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인해 국경을 근간으로 한 기존 시장 개념이 무너지며, 전세계가 글로벌 단일시장으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음
- 미국의 나스닥이 일본, 홍콩에 이어 국내에도 설치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벤처 경쟁도 글로벌 경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
- 이에 따라 해외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제휴를 적극 추진하여 자본이득은 물론 글로벌 경영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함

#### <사례> 대만의 벤처펀드

- 대만의 벤처투자 재원은 60억 달러(99년말 현재) 이상이며, 이들 벤처펀드는 기업(78%), 금융기관(20%), 정부기관(2%) 등으로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임
- 벤처펀드의 25% 정도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투자돼 해외 사업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, 주력 투자업종은 정보통신, 바이오테크, 전자, 우주항공 등임
- 대만의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전용 단지인 '신죽과학공업원구'와 함께 벤처산업을 일으킨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

### - 넷째, '스피드 경영'을 위해 A&D의 수단으로 활용하라

- 기존의 R&D는 급변하는 기술 혁신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우며, 대안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A&D(Acquisition & Development: 인수개발)가 필요함
- A&D의 활용은 신기술 확보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,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스피드 경영을 가능케 함

#### <사례> 시스코 시스템즈 및 인텔

- (시스코) 인터넷 장비분야의 선두기업인 미국의 시스코社は 2000년 3월 제트셀 등 벤처기업 2개사를 5억 달러에 인수하고, 무선인터넷 분야의 기술을 강화함
- 시스코의 벤처기업 인수 방법은 주식교환 방식으로 고가의 자사 주식을 벤처기업에 일정 비율로 제공함으로써 현금 없이 경영권을 인수함
- 99년 146억 달러 투자로 18개 벤처기업을 인수한 시스코는 2000년 중 무선 및 보안기술 상위 벤처기업 20여개사를 인수할 예정임
- (인텔) 인텔은 96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1백여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, 특히 인터넷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
- 절대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관련 기술은 자체 개발하되 인터넷 기술은 A&D로 확보하는 'Develop & Buy'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

(백홍기 : hkback@hri.co.kr ☎ 3669-4077)